



韩国语教育研究新视野

姜宝有 黄贤玉◎著

 復旦大學出版社

韩国语教育研究新视野

한국어교육 연구의 새 지평

姜宝有 黄贤玉 著

复旦大学出版社

한국어교육 연구의 새 지평
韩国语教育研究新视野

강보유 황현옥 지음

복단대학교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教育研究新视野/姜宝有,黄贤玉著. —上海:复旦大学出版社,2015.6
(攻玉文丛)

ISBN 978-7-309-11098-2

I. 韩… II. ①姜…②黄… III. 朝鲜语-教学研究-文集 IV. H559-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268987号

韩国语教育研究新视野

姜宝有 黄贤玉 著

责任编辑/唐敏

复旦大学出版社有限公司出版发行

上海市国权路579号 邮编:200433

网址:fupnet@fudanpress.com <http://www.fudanpress.com>

门市零售:86-21-65642857 团体订购:86-21-65118853

外埠邮购:86-21-65109143

当纳利(上海)信息技术有限公司

开本 890 × 1240 1/32 印张 11.25 字数 307 千

2015年6月第1版第1次印刷

ISBN 978-7-309-11098-2/H · 2407

定价:28.00元

如有印装质量问题,请向复旦大学出版社有限公司发行部调换。

版权所有 侵权必究

어 리 말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국어는 현재 한국과 조선 그리고 해외 동포를 포함하여 사용자 수가 7,720만 명으로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대국 언어로 자리잡았다. 한국어는 또 인터넷 사용 인구에서 세계 10위에 속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어를 10대 실용언어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어는 이제 국제어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한국어는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에스파냐어, 아랍어 등 통용어종에 이어 인기 언어로 급부상했다.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대학교마다 한국어학과 신설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이미 200개를 넘어섰으며 아직도 한국어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들이 끊이지 않고 줄을 서고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양적인 성장에 힘입어 질적인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학문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중국의 강남땅에 한국어 밭을 개척하고자 강보유와 황현옥은 1995년에 정든 고향 연변을 떠나 황하, 장강을 넘어 상해탄에 새로 삶의 터전을 잡았다. 돌이켜 보니 복단대학교 교정에서 한글의 꽃이 피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되어 온다. 이 책에는 한국어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았다. 대학교 강단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생각과 고민이 담겨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주로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에서 발표했던 글이거나 학회지나 논문집에 실었던 글들 가운데서 20 여 편을 골라 모은 것으로 당초 하나의 책으로 묶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다. 그래서 중복된 논의거나 책의 제목에 손색이 가는 글도 있었다. 때이른 자신감으로 어설피기만 했던 글들을 정리하면서 보니 부끄럽기도 하지만 글쓴이의 초심을 원색 그대로 보이게 하자 그저 책의 체계에 맞게 운문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간 20년 간의 한국어교육 실천과 연구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이 책은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문화언어학, 화용론, 인지언어학, 교수법, 교육평가, 교과서 구성, 교육과정, 언어규범과 한류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어교육을 조명하였다.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 교육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한국어교육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 책이 출간됨을 더없이 고맙게 생각함과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준 북단대학출판사에 깊이 감사 드린다.

끝으로 한 가족같이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단합되고 화목한 북단대학교 한국어학과 여러 선생님들에게는 항상 고마울 뿐이다.

2015년 북단대학교 한국어학과 20돌 생일에 이 책을 바친다.

2015년 3월

고향 해란강반에서 일송정을 바라보며

강보유 황현옥

总 序

倏忽间，自己成了外文学院现职教工中最年长的一个。正是出于这个原因，孝泉院长嘱我为这个丛书写篇短序，我也不好推辞了。中国人请客吃饭让长者上坐时，会说（如果用英文）seniority is beautiful，其实让与被让者全明白，那不过是虚礼浮言而已。

虽与学院具体工作脱节已久，我仍感到，复旦的外文学院至今有很强的教育机构的自我意识，我以为这是一个好传统。班级分得小，着重施基础训练于每个学生；管你什么大牌教授还是博导，都得给本科生上课，还自己动手改学生作业，对学生在学习中带共性的问题了然于胸；学外文必须讲究“精确”和“流利”并重的理念，始终扎根在我们的培养目标中。虽说这些年来物质第一主义的惊风骇浪也不免冲得有些同仁晕头转向，但基本的教学底线可以说还未被突破。我这儿就有个实例：外出做同传的教师并非单为丰酬，还主动把各种门类的知识、信息、技术、术语翻译等等的 firsthand 经验观感，带回送入课堂，或提供给编写教材或辞典的同仁做素材。怕就怕“遥望洞庭山水翠，白银盘里一青螺”，看人家把教育机构的自我意识丢了，反觉做“青螺”寒碜，赶着去跟风；当然，我还怕现状不改，甚至愈演愈烈，今后会怎么样，那就不好说了。

与教学相比，研究工作可能不尽如人意。别说人家怎么看我们，就连本校领导可能也认定，以“研究型”标准衡量，外文学院在文科院系中算是比较落后的单位。前几年，我读过一本威廉姆·克拉克（William Clark）所著《学术魅力和研究型大学起源》（*Academic Charisma and the Origin of the Research University*）的“奇书”（作者开宗明义的自我定位）。经作者梳理耶稣会教会大学、德国大学、“牛

剑”(Oxbridge)传统,算是懂了研究型大学的起源与日耳曼各国的市场因素和官本位影响有关——对此也有人质疑甚至批评——有意思的是:在浩如烟海的近580页的考据和研究中,作者认为,现代大学里“眼睛战胜耳朵”或“文字重于口述”(恰与老子所谓的“行不言之教”字面上相悖?);要有“学术魅力”就得依靠发表论文/著作,并邀来别人的佳评。

这套丛书多少说明,我们已经意识到复旦外文学院的相对薄弱环节,正在迎头赶上。只是我以为教师的学术研究工作,相当程度上应当以教学实践的积累为基础,又能回过头去促进教学,从而进一步造福社会。这并不排斥有的教师资质和志趣脱俗超逸,可能更适于从事纯粹的而非直接“用世”的研究工作,像马克思在《论犹太人问题》中说的,“学人、科学家只代表与利益无涉的专业人格。”他们的论文是智力操练的成果,是他们“专业人格”的伸张,是乐趣的满足,发表后可望成为益智主义的佳品,用来抵拒目前正丑恶横行甚至威胁到学生的反智主义。

不过,“述”而有“作”(按朱熹解:“述,传旧而已,作,则创始也”),即传旧同时要有所创新,真不是件容易的事情。诸同仁能够各自搜辑文集,结成系列出版,肯定经过焚膏继晷的艰辛,自然要为此击节叫好。但是事情的另一面是,现代研究型大学对教师造成极大压力。压力源就是基本上以量化为准绳的职称评议制度,一种更像是中世纪西方教会和骑士团社会遗形的制度。呜呼,西方曾有柏拉图式的平等对话,中土有“吾与回(指颜回)言终日”的孔子循循善诱,都已成了教育的“失乐园”,即使今人多喜引用,实际上已被扫进历史的垃圾堆。看来,我们都得接受publish or perish的学术生态铁则。可是,学术啊,多少投机取巧的卑劣,多少不择手段的钻营,多少蝇利蜗名的刊物,多少奸宄互利的委员会和辛迪加,借汝之名而行!

我常与同仁共勉:写论文,做学术,还是牢记“图难于易,为大于细”的古训为好,注重平时的勤奋积累,宁可日有寸进而不搞“大跃进”,疑他人所不疑,不以魁士定见为当然,给神话去魅,甚至质疑“常识”——总之,借用一个英语文评界的新词problematizing——如此生存在学术圈里,可能被晒迂腐,不懂“性价比”,但就当事个人而论,是

不是学术会变得更生动活泼些？

虽说“文字重于口述”，研究型大学并不仅仅等于写出论文发表。提高一点要求说，还要培育师生的思辨口才。对教师的最低要求固然是要意尽于言，不能做大肚小口的“热水瓶”，各种课内外的研讨班（seminars）和口头陈述（oral presentations）也不能只是做做样子，多的是“单向交通”，各说各的；即使有认真听别人陈述的，大多也是谦冲自守，鲜见有人站出来质疑，更没有即时的交锋。想来，这与古希腊修辞重讨论（discourse）和演说（public address）以及古罗马的七艺（头上三种便是修辞、语法、逻辑）造成西方思辨口才传统有关，而中国修辞讲究的赋、比、兴和对仗、排比、平仄等等，非虚计再三，始能滞后表达。既然研究型大学是“舶来品”，真要培养与这样的大学匹配的人才，辩理遽生于电光火石的瞬间，辩才如舌粲莲花的训练，似也不可或缺。让我们先从提高seminars和presentations的质量做起，如何？

最后，也想对于不希望自己陷入昏庸的学界权力人物说几句：希望你们好好problematize“成果”二字，细察目前一级又一级名号繁多的项目，戳破气泡，拧干水分，排斥上述威廉姆·克拉克描述中世纪大学特点时用的nepotism（相当于今日所说的“关系”）。更想问一句，外文院系教师发表的译作（特别是其中有影响者，如当年杨必的《名利场》）以及长篇书评，何以不能算作成果？你们学过历史吗？当代中国学界的两次启蒙大转型，“五四”也好，改革开放也罢，大量的学术成果哪一次没有译作和书评的一席之地！惯以斤斤计较他人论文数量为业的专家，要不你们也来译一种，写一篇？

陆谷孙

2011年10月

차 례

제 1 부	한국어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	1
제 1 장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2
제 2 장	격조사 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16
제 2 부	문화언어학과 한국어교육.....	29
제 3 장	문화언어학 시각으로 본 한국어 문법 교육.....	30
제 4 장	문화언어학과 언어문화 교육	42
제 5 장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54
제 3 부	화용론과 한국어교육.....	69
제 6 장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화용론의 접근 방법 모색.....	70
제 7 장	문학작품의 대화문에 대한 화행의미론적 분석.....	87
제 8 장	화용론 시각에서 본 한국 문학—작품 분석과 교육 방법 연구—	99
제 4 부	인지언어학과 한국어교육.....	111
제 9 장	인지언어학과 한국어교육.....	112
제 10 장	한중 언어 문화인지구조 비교로부터 본 한국어문화 교육 방법 연구.....	135
제 5 부	교수법과 한국어교육.....	155
제 11 장	한국어교육의 문화적 접근방법-문화투영교수법.....	156

제 12 장	한국어교육의 문화인지적 접근방법-문화인지교수법	169
제 13 장	통합 원리의 회화 교육 방안	183
제 6 부	교육평가와 한국어교육	195
제 14 장	시험평가로부터 본 한국어 어휘-문법 교육	196
제 15 장	단문짓기로부터 본 한국어 어휘교육	215
제 7 부	교과서 구성과 한국어교육	227
제 16 장	초급한국어 교과서 구성 원리	228
제 17 장	문법교재 편성 방안	242
제 8 부	교육과정과 한국어교육	253
제 18 장	한국어 언어지식 교육과정 설정과 교수요목 작성 방안	254
제 19 장	한국어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개정 방안	268
제 20 장	상해·절강지역 한국어교육 실태 조사 분석	280
제 9 부	언어규범과 한류 그리고 한국어교육	295
제 21 장	언어규범 통일방안과 한국어/조선어 교육	296
제 22 장	세계 속의 한류-중국에서의 한류와 한국어교육 그리고 한국문화 전파	309
참고문헌		325

제 1 부
한국어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

제 1 장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1. 발음 교육 연구 목적

통일적인 발음 교육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과학적인 기준이 없이 교과서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나름대로 자모음 교육 순서가 매겨 지고, 발음 위치가 정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의 현주소이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은 전문적인 발음 교재가 없이 그리고 발음교육과정이 배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독과(精讀課)의 몫으로 기초 단계의 ‘초급 한국어’ 교과서에 많이 의존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는 중국의 한어와의 대조 속에서 활발히 진행되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 연구가 발음 오류에 대한 분석으로서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발음 오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서 발음 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는 발음 오류에 초점을 맞추어 발음 오류 원인을 밝히는 데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발음 오류가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떤 장애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언어 연구에로 그 연구 영역을 넓혀 가야 할 것이다.

20 대에 막 진입하고자 하는 성인들이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처음부터 발음 오류를 극복한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발음 교정이 뒤따르게 된다. 최대한 빨리 발음 오류를 극복하고 정확한 발음을

함으로써 모국어 화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발음 교육의 목표이고 발음 교육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발음 교육 연구 현황

외국어 습득의 차원에서 볼 때, 애초에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학습자의 심리부담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관건적인 동기부여 대목이기 때문에 발음 교육에 대한 논의는 줄곧 끊이지 않고 있다.

한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는 지역적으로 볼 때 한국 내에서의 연구와 중국에서의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송향근(2010)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09년 8월까지 한국 내에서 발표된 한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논문이 총 197편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서 주제별로 어휘, 발음, 문법 등 교육 내용의 논문이 총 91편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67편이 발음 교육 관련 논문이었다. 문법 오류, 어휘 오류, 발음 오류 등 오류 분석에 관한 논문은 모두 64편이었는데 발음 오류를 분석한 논문이 모두 20편이었다. 이로써 한국 내에서는 한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관련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발표된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논문은 주로 아래와 같은 논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의 학회지 《韓國(朝鮮)語 教育研究》(1-7)에서 159편, 연변대학교 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편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I-VII)에서 84편, 연변대학교 조선언어문학학과 편 《조선-한국언어문학연구》(1-5)에서 12편,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경제문화연구소 편 《중국에서의 한국어(조선어) 교육의 현황과 장래》에서 28편, 리원길 주필 《세계속의 조선(한국) 언어문학 교양과 교재편찬 연구》에서 10편, 이 용해 주필 《한국학연구》에서 7편, 김영수·리민덕 편 《한국어교육논문집》에서 16편으로, 도합 316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23 편이 발음 교육 관련 논문이었다. 중국에서는 발음 교육 관련 논문이 한국 내보다 훨씬 적은 대신 주로 어휘, 문법 교육 관련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음 교육 관련 논문을 내용별로 볼 때, 발음 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에 관한 논문보다 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실제적인 발음 교육 방법에 관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먼저, 발음 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발음 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한국 내에서는 김은애(2005:29-38)를 들 수 있고 중국 내에서는 김영금(2009:184-200)과 김충실(2009:215-233)을 들 수 있다.

김은애(2005:29-38)에서는 한국 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진행되는 발음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발음 교재 개발, 발음 교육 과정과 교수요목 설계, 신규 교사 연수 및 경력 교사 재교육, 발음 교육용 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표준 발음법의 적용과 현실 발음의 인정, 발음 교정 교육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고 있었다. 김영금(2009:184-200)과 김충실(2009:215-233)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과 연구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비한 과감한 제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김영금(2009:184-200)에서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발음 교육, 음운변화에 대한 발음 교육, 초분절 음소에 대한 발음 교육 등 면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 연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들을 지적하였다.

김충실(2009:215-233)에서는 한국에서의 연구와 중국에서의 연구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대조언어 이론과 중간언어 이론으로 발음 교육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상 논의들에서 보면, 발음 교정을 위한 발음 오류 분석 방법, 발음 교육 과정과 교수요목 설계, 발음 교육 도구로서의 교재 개발 등에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발음 교육 실천 경험에 기초한, 실제적인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금송(2000)에서는 한중 언어의 음운 대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실태, 효과적인 발음 지도 등 세 가지 내용을 다루었다. 노금송(2002:151-169)에서는 발음 오류 분석으로부터 음운 발음 지도, 음운 변화 지도, 한어 간접 극복 등으로 중국인 화자가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주옥과(200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흔히 틀리는 발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교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정확한 시범을 보여주면서 반복적인 강화 연습으로 발음 오류를 그때 그때 바로잡아 줄 것을 제안했다.

유춘희(2002)에서는 경음과 경음화를 발음생리학적으로 고찰하고 학습자들에게서 존재하는 몇 가지 발음 오류를 분석하면서 모음 뒤에서의 경음 발음과 평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 발음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왕단(2003)에서는 고급 학습자들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절음소, 음운변화, 초분절음, 발음기법 등으로 나누어 살펴면서 열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수용(2004)에서는 중간언어이론에 기초하여 발음 오류 산생 원인을 밝히고 그로부터 발음 오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근보강(2005)에서는 대비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한어의 음운체계를 비교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조음 방법을 시시각각 모방하게 하는 발음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들은 한중 언어 음운 대조 속에서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주로 한국어 발음 오류 극복 방안으로 음운 변화에 따른 발음 지도 방안과 초분절 음소에 따른 발음 지도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어

음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자음에서는 경음 [ㄱ, ㄷ, ㅂ, ㅅ, ㅈ] 발음, 유음 [ㄹ] 발음, 비음 [ㅇ] 발음을 들 수 있고, 모음에서는 [계]와 [기], [-]와 [니]의 혼동을 들 수 있고 [나]와 [ㄷ]의 발음도 한어의 간섭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들 수 있다. 음운변화에서는 연음화,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등으로 나타났다.

3. 발음 교육 연구 과제

중국에서의 발음 교육 연구 현황 분석으로부터 보면, 실제적인 발음 교육에 있어서 발음 오류를 막는 효과적인 발음 지도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1. 한국어 자모음 교육 순서와 시간 배당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2. 한국어 자음 발음을 음운으로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음절로 가르칠 것인가?
3. 자모음의 발음 위치를 무엇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4. 음운변화 규칙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주입할 것인가?
5. 실험음성학적인 분석과 이론을 어느 정도 도입할 것인가?
6. 초분절음(장단, 고저, 억양)을 어느 정도 가르쳐야 하는가?
7. 교사의 음운학 지식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
8. 발음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9.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이 필요한가?
10. 발음 오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발음 오류 위계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상의 과제들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덜 논의된 과제들로서 한국어 발음 오류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